

연구논문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딜레마와 이중전략^{*}

이진옥^{**}

〈국문초록〉

2000년대 초반 여성정치세력화 담론은 여성의 과소대표성의 해소를 위한 할당제 도입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후, 참여보다 대표 중심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과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이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왔고, 이는 약화되고 정체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반영이자 더불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지역 여성운동가들과의 집담회 내용 분석과 2014년 지방선거에 진 대표의 출마를 지원한 수원여성회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여성운동이 정당정치의 경계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참여의 정치(politics of engagement)에서 갖게 되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안고 있는 딜레마와 역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천 전략 모색에 일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여성정치세력화, 여성운동, 정당정치, 이중전략, 수원여성회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546). 유익한 심사평을 주신 심사자들과 이 연구에 함께 해주신 여성운동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lee.jinock@gmail.com)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정치세력화(political empowerment)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성원들이 서로 연계하여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외상태에서 탈출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제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Bystydzienski, 1992: 3; 이혜숙, 2016: 27에서 재인용)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이에 여성운동은 여성정치세력화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정치개혁의 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 여성의 참여가 가장 부진한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로 정의하고, 여성단체는 여성의제를 만들어내고 정치권에서 결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유사정당의 역할을 하며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을 주도했으며, 여성과 관련된 정책평가나 다양한 여성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여성후보 발굴, 여성후보 지원, 여성유권자운동, 공약평가 등의 활동들을 전개해왔다고 평가된다(조현옥, 2005: 45, 63-66). 이러한 초기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해 오장미경(2004)은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이 직접적인 참여보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의 의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제도 정치에 진입에 집중하고, 그 결과 여성운동과 제도 정치 양자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제도정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퇴색되며 소위 진보적 여성운동이 제도화되고(조이여울, 2006), 그 이전에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던 진보와 보수여성운동과의 경계도 허물어졌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권김현영, 2006).

이러한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담론은 2004년 비례대표 의석의 50%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기 전후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는 17대 총선이 지니는 정치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대 총선 이후 여

성의 정치 참여 비율은 더디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 여성정치세력화 담론은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비판적 경향이 우세하다.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을 해결하는 정치운동이자 민주주의의 확장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오유석·김은희, 2010: 284-285). 이에 문지영(2015)은 여성정치세력화 논의가 여성 이익의 대표를 내세우든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 해결을 강조하든 그런 입장에서 여성 정치참여는 일차적으로 할당제를 중심으로 여성정치인 수의 증가, 다시 말해 여성의원 수의 확대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는 대표의 문제로 축소되어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여성정치세력화에서 주장하는 ‘정치’는 공식적인 정부 제도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및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되었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민주주의 확장 과정이기 보다는 협소한 대의 민주주의의 결함을 내재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한다(문지영, 2015: 8-9). 마찬가지로 최일성(2012)도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참여민주주의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민중이 배제된 채 소수 엘리트 여성 중심의 정치참여에 국한되었다고 비판한다.²⁾

이 논의들이 물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당제를 통한 여성 정치참여 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초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결과 여성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이지만, 그에 대한 담론은 취약하게 남아 있고 여성정치세력화 및 할당제 개혁을 위한 운동도 더 이상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할당제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여성의 수적

1)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6대 5.9%, 17대 13%, 18대 13.7%, 19대 15.7%, 그리고 20대 17%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할당제가 도입된 17대 국회 이후만을 보자면 상승폭은 4%p에 불과하다.

2) 이러한 주장도 지금까지 비례대표 할당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실증적 경험 연구를 통해 과장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이진옥 외, 2017).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 아주 제한된 효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제의 담론적 정당성과 명분이 줄어들면서 할당제 운동의 동력은 매우 약화되었고 담론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논의가 국회라는 정치의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여성정치세력화에 미친 영향은 담론에서 배제된 측면도 없지 않다.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에 대한 논의는 국회와 다른 결로 그 필요성과 의의가 설명되어 왔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여성 대표성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대중의 정치적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는 지방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자원의 지역적 분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논의되어 왔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5). 이 과정에서 충원되는 새로운 정치 인력은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훈련을 쌓고 단계적 행정 경험을 가진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 현 제도권의 정치가 시민생활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와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체제의 위기 및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할 때, 새로운 정치인 충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현안이나 주민복지 및 환경개선 등의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며 지방자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냉소주의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활정치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자율성의 확립 및 정치적 공공영역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박재욱, 2005: 237-241).

이에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이 복지 및 환경, 문화 등 남성보다는 여성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며, 이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다(김혜성 외, 2013: 19-21). 또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가 중앙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적 기능 및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장려되었다(엄태석, 2011: 232-233). 더 나아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회에 지역문제를 잘 알고 대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성의 진출을 제고하는 것은 여성참여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본이념을 살리고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김명화, 2006: 4). 다시 말해, 여성의 정치적 참여기회의 확대는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며, 여성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지방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답론은 여성은 하위정치 또는 생활정치에 보다 적합하고 상위 또는 중앙정치는 남성이 보다 적합하다는 정치 영역의 성별 위계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지난 5회 선거에 비해 25.2%로 3.6%p 상승한 반면, 광역 여성비율은 14.3%로 오히려 0.5%p 감소했다.³⁾ 이 결과는 물론 광역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 제도적 디자인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김은희, 2010: 90). 그리고 이 제도적 성별성은 정치 영역의 성별 위계화 답론과 맞물려 작용하며, 광역의회 및 국회에서 낮은 여성 비율을 현상 유지시키는 효과를 강화한다.

이 논문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과 답론의 현실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재생을 위한 답론적 전환을 꾀한다. 그를 위해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지역 여성운동가들과의 집담회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현재의 여성정치세력화 답론의 현재적 지형을 진단하고, 2014년 수원여성회 대표의 지방의회 진출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여성운동이 정치의 경계

3) 더 나아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 여성이 전무하고, 전국적으로 총 9명의 여성 기초단체장이 배출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4)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를 1인 이상 추천할 때 해당 조항은 적용대상을 “도·시·지역”에 한정하고, “기초 또는 광역”으로 규정하였다.

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사회와 정당정치의 영역 사이의 긴장을 살펴본다. 그를 통해 여성운동이 참여의 정치(politics of engagement)에서 갖게 되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안고 있는 딜레마와 역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중전략의 실천 방법 모색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론

이 논문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지역 여성운동가들과의 집담회의 내용 분석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 참여한 수원여성회의 경험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내용 분석은 (사)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이 기획하여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부산, 창원, 고양·과주,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여성운동 단체의 중간 활동가들이 참여한 여성정치 집담회⁵⁾의 내용과 2017년 6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후 여연)의 성평등지역정치위원회의 집담회⁶⁾를 참조한다. 두 번째 사례분석은 2014년 지방선거에 전 대표가 기초의회에 출마하며 직접적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참여한 수원여성회 구성원에 대한 면접을 바탕으로 한다.

5) 이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20대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플랫폼 만들기』 제목으로 진행되었고, 각 지역의 주요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사)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연 4회 열리는 여연의 성평등지역정치위원회는 중앙 중심의 여성운동 의제를 벗어나 지역의 정치 현안 및 여성운동의 의제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자 2013년부터 구성되었고, 의사결정 구조인 이사회와 달리 지역의 현안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매 회의는 각 지역에서 개최된다.

〈표 1〉 집담회 참가자 및 면접자 목록

지역	참가자	연령	활동 경력	집담회/ 면접 시기
고양·과주	A	40대 후반	여성단체 회원	2015/08
	B	40대 후반	여성단체 회원	
	C	40대 중반	여성단체 회원	
	D	40대 후반	여성단체 현 대표	
경남·창원	A	50대 초반	여성단체 현 대표	2015/08
	B	50대 중반	현 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	
	C	50대 초반	여성단체 대표	
	D	40대 중반	여성단체 사무국장	
부산	A	40대 후반	여성단체 현 대표	2015/05
	B	30대 후반	사회복지사, 전 시의원	
	C	50대 중반	여성단체 전 대표	
	D	40대 후반	여성단체 전 대표	
인천	A	40대 중반	여성단체 현 대표	2015/09
	B	50대 중반	여성단체 현 대표	
	C	50대 초반	여성단체 현 대표	
	D	50대 초반	여성단체 현 대표	
	E	40대 초반	여성단체 현 대표	
여연 성평등지역정치 위원회	A	40대 후반	여성단체 현 대표(대구)	2017/06
	B	50대 중반	여성단체 현 대표(창원)	
	C	50대 초반	여성단체 현 대표(대전)	
	D	50대 초반	여성단체 현 대표(서울)	
	E	40대 후반	여성단체 현 대표(대구)	
	F	40대 초반	여성단체 현 대표(서울)	
	K	40대 중반	여성단체 현 대표(광주)	
	L	50대 초반	여성단체 현 대표(경기)	
	M	50대 중반	여성단체 현 대표(경기)	
수원여성회	A	50대 중반	후보자/ 현 시의원	2014/06 2017/10
	B	40대 중반	선거대책본부 사무장/ 사무국장	2014/05 2017/03
	C	50대 초반	선거운동원/ 대표	2017/03
	D	50대 초반	선거운동원/ 대표	2017/03
	E	30대 중반	선거운동원/ 활동회원	2017/03

3. 여성정치세력화 담론과 실천의 현재적 지형

1) “제1세대” 여성정치세력화의 운동의 복기

집담회에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에 대한 개념화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이들도 대체로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창원 A>는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여성후보 내기 운동 이후, 비례대표제와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소속 단체의 후보가 출마하고 꾸준히 여성의원들이 배출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여성정치세력화는 후보보다는 내용과 실질적인 힘에 주목하여 여성 유권자가 성평등한 정치 결과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여성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요구를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 압력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 결국 단체나 조직적인 힘으로 이것이 목소리가 나와야 ...그게 아마 결정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힘이 된다는 것은 아마 **표의 힘**일 것이고 ...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요구 사항을 알고, ... **성평등한 정책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뭔가 **변화**시키는 것 까지... 갈 수 있어야만 그 여성정치세력화에 그 내용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 그런 의식적인 내용까지 가야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정치세력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여성운동이 과연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경남·창원 A).

이러한 여성정치세력화의 정의는 개인 차원의 의식화, 집단 차원의 조직화 단계,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참여하는 정치참여의 단계로 구성되는 점진적 과정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개념화와 상통한다(라미경, 2005: 214-217; 이혜숙, 2016: 2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참여’ 개념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여성운동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미궁 속에 놓여있다. 일례로 <인천 D>는 “여성주의 현장 판에 있는 여성들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역량강화 되면서 가는 게 이 여성정치세력화로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여성운동가의 조직적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지만 이것이 어떻게 정치 참여, 그리고 대표의 문제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비록 대표성이 공직 선거의 출마와 선출의 문제로만 제한될 수 없으나, 여성운동의 일상적인 실천들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의 참여가 곧 대표의 문제로 등치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정치적 대표성⁷⁾은 형식적인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때 일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참여와 대표는 현실적으로 분리된 영역이며, 이러한 이원화된 현실 구조에서 ‘참여 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정치세력화를 논의할 때 ‘대표’의 문제는 공백으로 남게 되어 여성정치세력화의 의제는 실종되기 쉽다. <인천 A>는 더 나아가 기존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며, 세력화의 시스템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제도정치 진입을 통한 세력화가 이제 개인의 세력화가 되면 안 될 것 같구요, …그렇게 중앙 정치에 진출한 여성 국회의원이거나 …그분들이 나와서 다시 단체로 돌아와서 활동하는] … 그런 순환구조를 만든 … 그

7) 한나 핏킨의 고전적 대표성 개념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다른 이가 대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제공하는 형식적(formalistic) 대표성, 인종·성·종족 또는 주거지와 같은 유사한 특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집단을 대표한다는 기술적(descriptive) 대표성, 국민의 열망 또는 관념을 대표하는 상징적(symbolic) 대표성, 대표자가 한 집단의 정책 선호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substantive) 대표성으로 구성된다(Pitkin, 1967). 대표성 차원에서 기존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은 기술적 대표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 대표성의 문제는 간과한 것으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대표성의 논의는 제도 정치 수준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조직적 세력화를 대입하기에는 다른 정치 수준들이 지닌 차이를 무시하여 비약적 해석을 이끌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 또한 대표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는 다른 정치 수준들을 교차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대표성을 주요한 개념적 틀로 활용하지 않는다.

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갖춰지면 여성정치세력화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진출하는 것이 아닌 ... **여성의 세력이 진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좀 들었었어요(인천 A).

집담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야권 성향의 정치권력이 우세하고 더불어 지방의회에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고양을 제외하고,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소회와 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의 정치 지형에 따라 여성정치세력화의 사안은 다른 모양새를 지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⁸⁾ 10여년이 지나면서 정치적 상황과 여성운동의 변화하는 지형 안에서 특히 여연 내부의 여성정치세력화 논의가 17대 총선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난 보수정권의 시기 동안 정치적 퇴행 현상의 반작용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여성운동과 정치와의 관성화된 관계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진행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과 그를 둘러싼 담론은 “1세대”로 규정하고 이 세대와 변별되는 상황과 극복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을 이 논문에서는 “2세대”로 구별하고자 한다. 1세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복기와 담론의 교착 상태에 대한 분석은 2세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당이 ...**현역의 어떤 그 대표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 사람이 진짜 여성운동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의회, 뭐 의원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여성운동은 여성운동대로 상처받게 만들고 조직을 흔들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작태들이 너무나 많다(경남·창원 B).

위의 <경남·창원 B>의 설명처럼 정당의 “현역 대표의 차출”로 인한 여

8) 2014년 각 지역의 여성의원 비율은 고양시 32.2%, 파주 42.8% 부산 17.1%, 인천 14.9%, 경남 9.8%, 광주 23.7%, 대전 20.4%, 대구 20.6%, 서울 23.8%로 나타난다.

성운동 조직의 근간을 흔들었던 폐해의 경험은 갑작스레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에 진보적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17대 총선을 전후로 “대표”에 집중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김은경, 2004)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 여연에서는 “낮에는 시민운동, 밤에는 정치활동”이라고 불렀던 시민사회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여연은 정치활동 금지를 암묵적인 내부 규칙으로 세움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한다.

초창기에는 여성할당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가야 했지만 참여 정부 들어서면서 임기 중에 여성들이 많이 차출되고 간택⁹⁾되는 거였잖아요. … **현재 시민운동의 영역, 플랫폼을 지켜야 하는 운동적 과제**로서 그때 당시에 결의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현직에 있는 **대표는 정당에 가입하지도 말고 중간에 정치에 참여하지도 말자.** [이]것은 현재 무너져내려가는 여성 운동을 지키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정관을 만든 것인데. … 항간에서 사용될 때는 각각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어 [왔어요]. …약간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여성운동이라는 우리의 운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하게 된 거죠 …(여연 D).

정당 가입 금지는 각 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자율적인 사안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과의 수동적인 관계 설정은 오히려 전략의 모색이기보다 조직적으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여성운동단체 출신의 제도 정치 진입은

9) 네이버 사전(2017)에 따르면, 간택(揀擢)은 “조선 시대에, 임금·왕자·왕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다는 뜻으로 “여러 후보자들을 대궐 안에 모아 놓고, 임금 이하 왕족 및 궁인들이 나아가 직접 보고 적격자를 뽑았다”는 의미로 설명된다.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여성의 정치 진출이 남성 정치인에 의해 선택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 집담회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여성의 정치 행위를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간택이라는 단어가 성애화된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과 결단력을 훼손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더욱 여성 개개인의 몫으로 전가되어, 역설적으로 “개인의 세력화” 경향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¹⁰⁾ 더 나아가 정당 가입조차 하자 말자는 비/공식적인 규약은 여연 회원 단체들과 소속 단체들에게 혼신을 빛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 민중연합당 후보로 [제가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 평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선거고 후보여서. 그런 것과 민중연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막 만들어지고 몇 달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 선거 나갔다가 돌아오면 되겠다 이런 측면과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나간 것인데, 여연 내(에서) … 공식 석상에서 내놓고 선거 나가셨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탈당까지 하라고 했어요. … **여연은 공동대표하려면 탈당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 당적조차 있으면 안 되는 거고. …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정황이 있었는데 또 [지금 선거 때는 [여성정치세력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연 K).

이런 정당 가입에 대한 비/공식적인 불허 문화는 제도 정치의 진출을 개별적인 선택의 문제로 남기면서, 의도와는 달리 여성 단체와 특정 정당, 다시 말해 민주당 계열의 정당과의 유착 관계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는 현상적으로 꾸준히 가시화되는 여연 출신의 여성운동가들의 개별화된 정치 참여와 달리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은 “대표 없는” 참여로 우회하여, 현실과 담론 사이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그 간극에는 여성운동과 정당과의 이중적인 관계, 즉 시민사회의 활동과 정당 정치 영역의 풀리지 않는 긴장이 핵심에 놓여있다.

10)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운동가는 17대 총선 이후에도 꾸준히 국회에 진입해 여연 출신의 국회의원은 총 14명으로 집계된다(김은희, 2017a: 407). 여연 대표 임기 중에는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그들의 정계 진출 행보는 대표 임기 후의 개별적인 활동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여성운동과 정당의 불협화음

대표 중심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엘리트 중심의 소수 여성의 정치 참여에 국한되었다는 비판에 대한 반동으로 제기된 참여 중심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논의는 비어있는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 ‘대표’가 아닌 ‘참여’를 통한 “실질적 여성정치세력화”를 하자는 주장은 정당과 여성운동과의 복잡한 관계의 실체를 외면하고, 그 결과 여성정치세력화를 공백으로 남기는 담론적 효력을 갖는다.

사실은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뭐 추천하는 것도 힘들고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키워가지고 나가라, 무소속으로 나가면 굉장히 힘든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안했던 여성 활동가나 운동가들을 선뜻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 정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해야 지지를 받는 이런 약간의 **정당에서 요구하는 여성 정치인과 여성계, 운동계에서 요구하는 여성 정치인이 다른 것 같아요. ... 정당 가입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 그 정당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는 여론화되는 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강이란 규정에 여성 단체가 정당에 가입을 [하면] 임원이 되는 걸 막아놓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 이 부분에서는 정말 고민 지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경남·창원 C).

정당 활동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제의 정치적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지만, 제1세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여정에서 대표 및 임원의 “정당 가입 불허”라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율은 여성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간의 단체를 더욱 분리시켜, 역설적으로 여성과 정치와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드는 모순적 결과를 낳는다.¹¹⁾

11) 이런 정당 가입 불허는 일부 여성단체의 오래된 전통이기도 한다. 이는 오랜 역사를 지

정당과 여성운동과의 관계는 각 지역마다 그 모양새를 달리하고, 또한 정치적 환경은 여성의원의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텃밭이자 다양한 정당 운동이 활발한 경남·창원의 경우, 정권 교체를 여성의 정치참여 연장선으로 인지한다. 일례로 2010년 도지사 선거에서 여성운동 단체들은 도지사 선거에 적극 결합하여 야권 연대를 적극 중재하고 정권 교체에 기여했지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한 도지사 선거운동에 대한 여성운동의 기여는 실제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여성운동 세력은 당선 후 성평등 추진을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또는 여성정책 담당관의 충원 등을 요구하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구가 묵살되는 “배신감”을 경험한다(〈경남·창원 B〉). 즉, 광의적 개념의 정치 참여는 경쟁적인 남성 정치의 문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더 나아가 정당에 의해 이용될 두려움으로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지마저 꺼려하는 상황마저 발생한다. 지방의회에서 특히 진보적인 정당 소속의 여성의원은 대체로 시민과의 소통력이 뛰어나고 여성 친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지만, 선거 시기에 정당과 거리두기는 의회와 여성단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여성정치인에 대한 부당한 외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는 당시 해체된 통합진보당 소속의 한 여성 도의원은 여성단체와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 차원에서 어떠한 조직적 지원이 없었고 선거 결과 아주 적은 표차로 낙선하게 된다. 이에 당시 지방선거에서 모니터링을 했던 〈경남·창원 D〉는 다음과 같이 소회한다.

닌 그 단체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오랜 시간 독재의 정치적 유산으로 개인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조직 문화로 읽힐 수도 있다.

정당의 문제라든지 사실 그 당이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영향도 많이 있었지만 ... 여성이고 혼자서 시의원 이렇게 거쳐서 비례 지역구로 4선 이제 하고 있는데 ... 우리가 항상 여성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여성후보자가 있다면 사실 조금 더 회원들한테 독려도 하고 그 이백 몇 표치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 우리가 항상 준비된 여성들이 나가서 그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 여성운동하면서 ...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는 ... 눈이 넓어져야 되겠다는, ... 생각을 했던 경험이었어요(경남·창원 D).

정당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는 그 이전에 발생한 대표 차출 또는 호선(co-optation)으로 발생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그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며, 조직적인 대응의 부재와 혼선을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 할당제는 여성의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보다는 정당 정치의 문법에 순응하는 여성 정치지망생의 진입로가 되기 마련이다.

여성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방식이나 경로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 후보 즉 지역 당 위원장을 잘 보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기초의회일 경우에 허다하다. 그런 상황을 보니깐 비례대표를 제도적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여전히 ... 여성정치를 구현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부산 D).

그 결과, 비례대표 의석은 여성의제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여성운동가나 여성운동과 접점이 있는 여성보다는 정당과 공천 영향력이 강한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헌신하거나 그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성들로 채워진다. 여성의 수적 대표성은 여전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할당제가 자

질이 부족한 여성의 진입로가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팽배해지면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은 설 자리를 더욱 잃는다.¹²⁾ 그러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담론은 지체되고 있을지라도, 현실의 정치 지형은 정치에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운동가도 다수의 여성 정치 지망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도로 변화하였다.

예전하고 달라진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 지금은 **줄을 서고 할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야말로 **간택을 해야 되는**. 우리가 열심히 여성운동하고 경험이 많고 이랬다 하더라도 그거는 맡기지 않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공감해요 ... (여연 M).

2000년대 초반에 정치 세력화를 얘기해서 누구를 비례로 보내고 했을 때는 일정 정도의 역량이 조금 있거나 단체 대표 정도만 하면 가기가 수월했어요. 다른 쪽에 여성이 많지 않았고 그냥 남성 국회의원 옆에 따라다니는 여성들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함량 비교를 하면 이쪽이 월등하니깐 상징성이 있었는데 ... 이제 **그 상징성이 먹히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구요 ... 시민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 n분의 1로 보지 그런 정치적 영향력...은 떨어졌다고 보구요 ... (여연 C).

1세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은 할당제가 도입된 후 정당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던 여성단체 대표들을 차출해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정치에 진입하려는 여성의 풀이 넓어지면서 여성운동가가 제도정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

12) 물론 여성운동의 경력이 자동적으로 정치 활동의 자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적이고, 여성의제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만 정치 활동이 설정되는 것 또한 여성 대표성을 제한시키는 문제적인 가정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에 대한 충성은 정당인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할 때,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한 남성 정치인을 보필하는 여성 정당의 활동을 일괄적으로 폄하하는 평가도 경계해야 한다.

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즉,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그 이전에는 만들어진 정치적 기회 구조에서 제도 정치로 포섭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당 정치의 메커니즘과 적극적인 협상을 필요로 하는 정치 지형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2014년 전직 대표가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던 수원여성회의 경험은 여성운동이 정당 정치와 선거 정치의 경계로 들어갈 때 직면하는 차이와 갈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아래 절은 수원여성회의 2014년 지방선거 참여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지니는 딜레마와 이의 해소를 위한 이중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 2014년 수원여성회 지방선거 참여 사례 분석

수원여성회는 1989년에 보육 활동을 중심으로 창립한 지역여성운동단체로서, 최근에는 동네 놀이터 실태 사업 및 수원시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수원시의 의정활동에 협력과 견제의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여성정치세력화가 수원여성회의 활동 과제이자 목표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민주당 출마에 대한 출마 권유를 받은 <수원 A>는 출마를 결심하고 <수원 A>의 대표 임기가 마무리되는 단체 총회에서 조직적인 선거운동 지원이 결정되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되어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 과정에서는 구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과의 경쟁을 거치며 여성전략공천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수원 A>는 2인 선거구에 (가)를 배정받고, 현직 의원은 (나)를 배정받아 결과적으로 선거는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 둘이 경쟁하는 구도로 진행되었다. 선거결과 전체

42,504 투표수 중 새누리당 (가)후보 13,327표, 득표율 32.87%, 새정치민주연합 (가)후보 10,370표, 25.58%, 새정치민주연합 (나)후보 8,521표, 21.02%, 새누리당 (나)후보 5,916표, 14.59%로 나타나 <수원 A>는 2위로 당선되었다. 이 절은 2014년 5-6월 수원여성회 선거운동 시기 진행된 당시 후보자 <수원 A>와 선거대책본부 사무국장을 맡았던 <수원 B>와의 면접과 2017년 3월 진행된 당시 선거운동을 조력했던 <수원 C>, <수원 D>, <수원 E>와의 개별 면접과 다시 <수원 B>와 <수원 A>와의 추가 면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다(위의 <표 1> 참조).

1) 출마 과정

<수원 A>는 마을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당시 수원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출마의 권유를 받는다. 단 한 명의 사례도 없었던 수원여성회 대표의 시의회 출마는 수원여성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여성정치세력화 과제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은 출마를 결심하는 개인의 몫이라는 점에서 주변의 조언을 듣고 당선 가능성을 타진하고, 출마 방식을 검토하고 결심하기까지 두어 달의 시간이 힘들었다고 소회를 말한다.

수원여성회가 올해가 딱 25년인데, 25년간 늘 여성의 정치세력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나가야 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한 번도 실현이 된 적이 없었다. 개인의 결심도 필요한거고, 조직의 결심도 필요한거고. ... 그런데 여건들이라는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여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제가 **입기를 마치는 것과 지방선거가 맞물린 기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 이후에 오히려 여성회 후배들에게 좌절을 맛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 **당신의 가능성을 타진**을 하기 시작했다...(수원 A).

더 이상 출마 권유가 곧 공천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권유한 사람이 공천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일 것이다. 기초의회에서 후보 공천 과정은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당내 영향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내재한다. 결국 당내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비례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결심한 <수원 A>는 오래 살았던 집을 팔고 이사까지 하면서, 여성 후보자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지역구를 찾아 3선에 도전하는 현역 남성의원에 도전하게 되었다.

공천 심사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현 의원이 있는 곳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두 사람을 붙인 자체가 현 의원 입장에선 충격이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실이었다. 그리고 당에서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수원시내에서 제일 늦게 결정 ... 계속 **엎치락뒤치락**, ... 이를 보면서 제가 활동 경력이나 프리미엄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일이 구나를 느꼈다. 또 하나는 제가 **활동을 하며 쌓은 인맥**이 있는데, ...심사 위원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푸쉬하지 않았다면 또 불가능한 요소였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여성연합에까지 전화하고 남윤인순 의원님에게까지 **연락**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제가 공천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래야 새정치가 가능하다고 끊임 없이 이야기하고 해서 만들어 진 것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2가를 받을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다(수원 A).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되어서야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자 등록을 마친 초짜 정치인에게 이 모든 과정은 처음이었고 보장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인맥을 동원하여 공천을 받으려고 분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적인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집합적인 여성운동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결국 공천을 받지만, 여성운동가의 정체성에서 자신을 “상품화”하는 정치인의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온전

히 개인의 몫이다. 당시 수원여성회 활동가들은 전 대표의 출마가 반가운 일이지는 했으나, 개인이 결심하기 전까지는 조직과 상의된 바가 없었다는 내심 불만을 비치기도 했다. 처음 출마 권유가 선거 있는 전해 9-10월 경에야 있었던 만큼, 후보자 본인에게도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조직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 A가 먼저 결심을 하고, ... 총회 때 회원들이 우리 한 번 해보자, 여성단체로서 해보자고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이 때 끄럽지는 않아요, 먼저 우리 내부에서 우리 내자가 아니라, 먼저 결심을 하고 외부에서 들은 얘기를 갖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낸 후보 맞아 이런 얘기들이 예민하게 얘기되기도 했었어요(수원 C).

나갈지 말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신지 전혀 말씀을 안 하셔서, ... 선거출마 고민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 제안을 누가 했는지, 어떤 경로였는지, 누구와 상의를 하고 있는 건진, 12월 31일 날 길에서 만나서 여쭙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미처버리는 줄 알았어요(수원 B).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직면한 문제점, 다시 말해 정당의 정치 충원 관행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할당제가 도입된 초기 여성 예비정치인의 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은 최대한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온 지역사회의 신임을 받고 있는 “여성 대표성”을 지닌 여성단체의 “현직” 대표에게 “콜”하는 것은 여성단체의 조직적 동원을 기대하고, 해당 선거의 진보적 여성 의제를 전시하는 효과를 노리는 정치 관행이다. 정당에 헌신해온 여성 당원을 대표자로서 키우거나 역량 있는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려 노력하기보다 외부에서 충원하는 구조는 사실 정당 내에 여성과 더불어 영입된 여성의 위상을 약화시킨다. 지역사회에 쌓아올린 여성운동의 성과가 정당 정

치로 포섭되면서 발생하는 갈등의 비용은 여성단체에 전가된다. 더 나아가 정당이 당 외부에서 충원을 할 경우 “콜”을 수용할 것인가의 고민과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표는 주지 않는다. 특히 이런 경향은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던 시기에 마련된 정치적 기회 구조에서 진행된 제1세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기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안철수와 통합해 창당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¹³⁾ 불안정한 정치 구도에서 열리는 정치적 기회 구조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노정하고 당선 가능한 정당의 후보로 선거에 참여할 경우 상대 후보자와의 불필요한 견제와 경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최종 결정전까지는 함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의 관행이다. 따라서 여성단체 구성원은 갑작스러운 전·현직 대표들과 논의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결정을 통보받는 식으로 자신의 단체가 정당에 활용되는 것으로 비춰져 당혹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예사이며, 이는 후보자와 단체 구성원들과 겪는 갈등의 서곡일 뿐이다.

13) 2014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은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2012년 대통령후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으로 시작되었던 공직선거법 개정 논란이 2014년 2월 28일 정계특위활동의 종료로 어정정한 상태로 마무리된 이후, 기존 공직선거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정당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 결국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공약 철회를 발표하였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를 명분으로 신당 창당 후 통합(이후 새정치민주연합)한 후에도 몇 차례의 공방을 거쳐 정당공천폐지 무효화를 결정하였다. 정당공천제가 기존 정치세력의 구태이자 폐약으로 규정되는 반면, 여성후보자에게는 정치 진입의 주요한 등판이 되어왔던 할당제의 무효화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들은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보장할 것을 정당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과정 이후에는 세월호 침몰이 터지면서 공천 과정은 더욱 불투명하게 진행되었고 여성 후보들은 더욱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이진옥 외, 2014).

2) 선거운동 과정

여성운동가 출신이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에는 정당성이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여성단체 대표에게 출마를 제안하는 정당은 지속적으로 민주당 계열이었다는 점에서, 여성단체 내부의 소수 정당 당원들의 반발은 노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원여성회는 후보자를 적극 지원하기 결정하고, 거의 모든 회원들이 선거운동을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사실은 처음 공천하고 그럴 때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특히 남인순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하는 활동들을 봤을 때 ... 사실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백프로 안 되는 거에 우리가 무슨 뚜렷한 목표를 갖지 않으면 선거운동 같은 거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저도 성향 상 진보정당에 가깝지만 ... 여성회에 적을 활동을 하고 지역에 계속 있을 거면 해야 하지 않을까 ... (수원 B).

언니가 수원시 의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뭐를 바꾸려고 하면 시의원이나 누구의 힘을 빌리면 너무 힘들고, 우리랑 교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급하게 결심을 하셨고, 여성의 생활정치를 하셨고, ... 저희한테 제일 마음에 맞는 것은 무소속이었지만, 정당으로 가니까, 예전에 정당 없이 했을 때와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수원 D).

그래도 우리 대표가 시의원이 되면 우리 대표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던 의원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전체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정말 아닌 사람 한 명 떨궈냈잖아요** ... (수원 E).

오랫동안 신의를 쌓아온 우리 단체의 대표가 지역의 대표가 된다는 것,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시의원을 배출한다는 것, 자질이 안 되는 지역의 시의원을 갈아치우는 것 등등 민주당이라는 정당과 엮이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결국 정당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이득보다 크게 체감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후보자 <수원 A>의 배우자와의 수원여성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가시화된다. 많은 여성 정치인들은 남성 정치인들과 달리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전적인 선거운동 도움을 받는 일이 드물다(이진옥 외, 2014). <수원 A>에게는 수원여성회의 조직적 지원과 더불어 많은 선거운동 경험을 가지고 출마의 욕심도 있었던 배우자가 든든한 자원이었다.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후원회를 모집할 수 없고 선거자금은 전적으로 본인, 다시 말해 본인의 가족이 책임지게 되어 있으며, 선거법상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이 선거운동의 합법적인 당사자가 되는 제도와 더불어 배우자의 선거운동 경험과 네트워크로 인해 <수원 A>의 선거운동에서 주도권은 수원여성회가 아닌 배우자가 쥐게 되었다. 이것은 선거운동에서 참여한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다시 말해 수원여성회 조직과 소원해지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지만, 이 갈등은 단순히 남성 배우자와 여성단체와의 관계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시민사회와 정당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한 불가피한 갈등의 복합적 결과물이었다.

이 선거운동 과정에 계속 초관부터 얘기한 것은 배우자가 ... 구체적인 사안에 매사 의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초창기 의견이었는데, **배우자가 선거운동에 쑥 개입** 하면서 ... 결국에는 다른 분을 데리고 와서 상황실장을 맡았어요, 제가 그렇게 **선거운동 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를 했고, 차량 꾸미는 것에서부터 운동원을 돌리는 방식이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 전체적인 기본 틀거리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받고 어떻게 할 건지에 된 다음에 우리 회원들을 설득해서 나오는 거지

그거 못한다고 했는데, 회원들은 의지가 있는데 제가 조직을 안한 게 된 거예요(수원 B).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배우자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수원여성회는 조직적 동원의 대상 그 이상이 안 된 듯 했으며, 후보자가 빠르게 진행되는 선거운동의 시간에서 상대적으로 느리고 조직적 합의를 중시하는 수원여성회보다 배우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비춰져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된다. 〈수원 A〉는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감당과 이사까지 해야 했던 가족의 희생에 대한 미안함과 더불어 정당 및 선거정치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더욱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주도하는 선거운동의 진행 상황에서 민주당이 시장과 시의원의 정책적 공조를 수원여성회에 압박하면서, 수원여성회의 정책적 제안들마저 묵살되었고 선거운동을 핵심적으로 지원하던 사무국장 〈수원 B〉와 정책을 담당했던 운동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누가 짚는지는 모르겠지만, 짠 판에 여성회가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여성회 모두가 동원**된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한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시장을 비서처럼 뒤꽂 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계속 시의원 역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들이 공무원인지 시의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상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시장의 공약을 그대로** 갖다가 받아가지고 집어 넣는게 표에 도움이 될거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수원 B).

수원여성회 후보면 당선이건 아니건 간에 … 여성의제라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막 당에서 요구하는 의제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 여성의제는 부분적으로** 다루게 되니까, 전면적으로하면 표를 못받을 만한 거는 다루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기는 했어요. … 우리도 잘 안 꾸러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내왔던 정책 모두가 … **공약으로** 되지

는 않았던 거죠(수원 C).

남성중심적인 선거환경과 선거운동의 과정은 수원여성회의 경험과 지식을 폄하하며, 다시금 선거운동의 젠더 위계를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당선의 목표와 반복해서 제기되는 “위기론”은 수원여성회의 문제 제기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상처를 입고, 당선만이 목적이었던 “선거환경”은 쾌적한 승리의 결과로 모든 것이 괜찮은 일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비용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던 여성운동가와 여성 후보자에게 전가된다.

여성회와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것은 **선거의 환경**이었지요. 우리는 단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선거의 환경이 주는 불협화음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이 선거의 환경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것이고 …우리 단체들과 같이 하지는 것은 당선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당선 과정도 중요한** 것이었죠. … 선거환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는 것… 생략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시간에 쫓겨서**. … 그게 어찌보면 이 환경이 남성 중심적이었다고 봐요. 제가 후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 여기에 맞춰서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을 더 선택**을 해서 가다보니, 부딪힘이 생겼던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B 사무국장이 가장 힘들었던 친구이고 한 동안, 얘기도 못했던 점이 있었고, 저도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데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상처를 받고, …(수원 A).

선거운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없이 참여한 수원여성회는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웠고, 그 결과 특히 양자의 조율을 하지 못한 〈수원 A〉와 그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수원 B〉의 관계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성향과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지닌 문화, 시간표 및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평등과 민주성을 주요한 가치로 여겨져 의사결정이 모두 다 함께 숙의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정치사회에서는 경쟁과 이익과 실리 중심의 정무적 판단을 기초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위계화된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로 여겨진다. 특히 당선을 목표로 한 선거정치에서 위기가 대두될 때, 주어진 시간표에서 기존의 관행과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내세우는 환경에서 여성운동의 내용적 개입이 철저히 배제되는 것은 여성운동의 존재적 기반을 위협한다.

3) 여성정치 참여에 대한 평가

더욱이 후보자였던 <수원 A>는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여성의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활동¹⁴⁾을 하게 되면서 수원여성회와 활동의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 차원에서는 <수원 A>의 출마와 당선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원 A>가 재출마하더라도 수원여성회는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조직적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대체로 모두가 전망한다.

이래서 여성정치세력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 외부에서 보면 여성회가 후보를 낸 것이지만 인맥 덕이지 대표성의 결과가 아니다, 예전처

14) <수원 A>는 그 이유를 상황의 제약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부연하기도 한다.

여성과 관련한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우선 예산이 많고, 행사성 예산들이 학교 교육 관련한 것들이 많고 이리다 보니까 지역구 관리 하는게 편하니까 갈려고 하는 의원들이 많고, ... 그래서 저는 기획경제위원회를 선택한 거고 ... 선택한 이유는 공약을 처음에 할 때 문화나 여성, 노인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저는 한창 생활임금의 얘기들이 한창 이슈가 될 때여서 그걸 좀 하고 싶었고 청년과 관련된 일들도 하고 싶었고, 이런 게 주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있고 여기가 전체 예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수원 A).

럼 경기여연에서 비례대표 낸 게 차라리 [났다], 정치세력화를 후보를 내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이 들고, 다음에 후보를 낸다면,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서 …, **선거를 운동관으로 여성단체의 색깔을 못하더라도, 정책만이라도 [만들어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 이 선거로 진짜로 얻을 성과가 무엇인지 예상하지 않으면, 남성 주류화 되어 있는 선거운동관에 가서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대체 얻은 성과가 뭐야, **당선된 건 후보자가 얻은 것이지 여성회가 얻은 건 대체 뭘까** …(수원 B).

여성운동가가 제도 정치에 진입하겠다는 결심하고 새로운 정치 세계의 규칙에 적응해나가는 과정도 매우 어렵지만, 〈여연 C〉는 후보자보다 후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철저히 남성중심적인 선거환경에서 선거법의 규제와 선거의 시계는 여성에게 낯선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세계가 잠식당하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 B〉의 경험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후보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결의를 하는 것 자체는 후보자가 결의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보자는 떠요, 어쨌든. 본인이 힘들긴 해도 후보자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니까 **후보자 아닌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선거를 땔 때, 돈도 내야하고 시간도 내야하고 …(여연 C).

그러나 여성단체의 후보를 시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이례적인 성과를 단체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수혜 여부와 단기적인 성과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즉,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재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작업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말”들의 재구조화이다. 다시 말해, 성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효과에 대한 중첩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앞서 보았던 1세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담론처

럼 여성운동의 정치 참여 경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즉자적인 경험에 기초한 평가가 지배적일 때 새로운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의 도약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때 느꼈던 거 뭐였냐면 **너네는 뭘 몰라**, 선거관은 그게 아니야, 이게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 언니가 위치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걸려면 이걸 해야 돼 딱 이런 게 있잖아요. ... ○○○ 의원도 경기여연 대표 하는 중에 그만 두고 가서 그걸 제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생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간 사람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때 여연 C랑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모시고. **우리가 너무 준비가 없었다**, 의원 하나 보내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 우리가 철부지는 철부지였겠구나, 우리가 정말 정치를 모르고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수원 D).

더구나 수원여성회 내부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칫 “성과 없음”이라는 평가는 수원여성회가 꾸준히 해온 지역 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여,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남성 중심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성주의는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후보자 〈수원 A〉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당선을 가져다 준 상당히 많은 “운”도 갖고 있었다.¹⁵⁾ 수원여성회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경험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시민사회와 정당 간의 이질적인 영역이 남성중심적

15) 2010년 6월 19일 성공회대 실천여성학전공에서 기획한 “정치하는 여성, 선거를 말하다” 집담회에서 나는 여성운동 단체 대표의 경험은 이와 대조적이다. 그는 조직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브로커에 휘둘려 너무나 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고 낙선하였고, 선거를 지원하였던 여성운동의 동료들 및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낙선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인 선거과정에서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여성정치세력화의 의의와 지역 여성 유권자, 시의회의 여성 대표성, 여성의원의 의정 활동 등 다면적인 관점에서 보다 긴 호흡의 공론화가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학습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직접적인 참여이라고 할 때, 수원여성회의 경험은 여성정치세력화의 실천을 모색하는 다수의 여성운동 단체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여성주의적 선거운동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5. 글을 나가며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담은 책, 『나쁜 남자가 당선된다: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실전 노하우』(석수경 외, 2013)는 선거운동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작동하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선거의 핵심은 당선이며, 그를 위해서 치밀한 계산과 고도의 전략을 갖춘 “나쁜 남자”가 될 것을 선거관의 오래된 “전문가”들이 주문하는 공식이다. 이런 나쁜 남자들의 세계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이 여성을 삭제하는 딜레마를 낳지만, 삭제된 여성 존재가 가시화되는 것이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역설이다. 문제는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생산해내는 현재의 담론 구조가 이 역설을 간과하거나 마치 정치에 참여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여, 그 결과 지속하는 여성의 과소대표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내부에 여성의 부재를 정당화하며 정치를 남성의 전유

16) 용인시 선거에서 남성중심적인 정치 문화를 경험했던 후보는 한 번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 “가”로 공천 받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모두 여성 중심의 여성주의적으로 기획하고 성공한 바 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경험은 선거문화를 바꾸었다는 자부심을 낳았다는 점에서 수원여성회의 사례와 대비되어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이진옥 외, 2014 참조).

물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이 딜레마가 참여나 대표나라는 다른 수준의 정치에서 여성운동과 정당 정치의 이질적인 영역의 교차 과정에 내재하고 있다는 본질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참여 없는 대표 중심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참여 중심의 여성정치세력화는 비어있는 선언에 불과하며, 오히려 여성정치세력화의 의제를 개별화시키고 혼란을 안겨주는 무기력한 결과를 낳았다. 이 담론의 혼란과 공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과 정당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담론 구조에서는 여성운동이 정당 정치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오롯이 여성운동에게만 전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구조적으로 진단되기보다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그 개개인들의 잘못으로 설명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여성운동단체의 대표에 대한 정당 공천과 의회 진출은 여성 대표성의 합당한 보상이자 여성운동의 성과에 대한 정치적 인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남성의 세계로 “간택”, “차출”, 또는 “호선”된 여성운동가 출신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이며 성차별적인 평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평가는 수원여성회의 경우에서 보았듯, 여성운동 출신 정치인과 여성운동가들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여성운동이 만들어낸 성과마저도 부정하는 모순을 범할 수 있다. 이는 스콧(2006)이 진단하듯이, 행위성(agency)을 강조할 때 당대의 담론과 구조가 내재한 역설이 마치 페미니스트 운동의 모순과 과오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오류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우선,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담론 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아래 김은희(2017b)가 지적하듯 여성주의 정치는 “정

치”의 고유한 순수한 영역이 있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정치의 이상적 개념화는 자칫 탈맥락적이고 반(反)정치적인, 그 결과 정치영역을 성별에 따라 분리하는 과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정치”와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여성주의 정치는 공식적 제도적 정치의 차원과 공사의 경계를 허무는 정치와 시민성의 두 차원을 아우르는 실천과 논의를 벌여왔다. 전자의 여성 정치세력화운동이 과도하게 공식적 제도정치에서의 여성대표성 증진을 강조한 한계가 있다면, 후자의 여성주의 정치는 게토화의 우려를 동반한다. 젠더정치는 이 양자의 결합을 통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공간을 확장하는 여성주의 정치를 모색해야 하고, ... 새로운 시민적 정치주체와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막연한 긍정도 과도한 부정도 미뤄두고 여성주의 정치의 예민한 측수를 세운 채 더디지만 온전한 젠더정치 실천이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자 과제일 것이다(김은희, 2017b: 414).

그래야 여성운동가가 정치에 참여할 때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 덜해지고, 보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에서 여성운동의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 진출”에 대한 욕구가 개인적 야심이나 권력지향적인 속성으로만 이야기되거나, 정당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공천이 “간택”이라는 수동적인 행태로만 의미화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성” 개개인의 활동과 경로에 집중하는 대신, “정당” 정치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문제로 이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의 구체성과 특수성, 정치적 맥락 및 정치참여의 수준과 대표 형태, 방식 등의 차이가 반영되어 여성정치세력화에 주어진 정치적 한계와 협상 방식이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향으로 담론의 추가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여성정치세력화의 규범과 당위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모색으로 실천의 전환이 필요하다. 로벤두스키(Lovenduski)는 정치적 대표에서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당은 페미니스트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조직이라고 역설하며, 여성이 정당에 개입하는 전략 4가지를 다음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보육의 평등, 재생산권, 가족 정책 등의 여성 이슈를 정치적 의제로 불러와야 한다. 둘째, 여성 이슈를 보편적인 쟁점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셋째, 여성의 네트워크와 정당의 남성지배적인 분야 내에서 이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넷째, 게임 규칙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젠더 관계를 변형시킬 방법을 모색하면서 정당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주의하여 확인시켜야 한다(Sainsbury, 1993; Lovenduski, 2005: 138에서 재인용). 즉, 이는 여성단체가 선거과정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당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사회와 다르게 작동하는 정당의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소위 여성문제를 보편화함과 동시에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당 안팎에서 이중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전략을 위해서는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일례로 십년 후의 여성운동의 전망에서 어떻게 정당 여성과 만날 것인가, 정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할 것인가, 여성 정책을 입법화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스트 명제 뒤에 숨는 대신, “정치” 영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정치 진입 통로의 마련과 대표와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일례로 오랜 경력을 지닌 여성단체의 전 대표들이 주축이 된 “여성정치포럼” 또는 “제3섹터”를 구성한다면, 시간에 쫓기는 현직 여성운동가들과 단체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그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고 여성운동가의 지속적인 정치진입을 꾀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대표성의 확대를 통한 남성 중심적인 정치 질서에 대한 교란 없이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요원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정당과 여성운동에 함께 득이 될 수 있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대안에 대한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지금이다.

참고문헌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5), 「여성들의 지방 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권김현영(2006),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한국사회포럼 2006 자료집(2006.3.6).
- 김명화(2006),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여성 풀뿌리 정치의 가능성」, 대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은경(2004), “여성의 정치세력화, 그 가능성과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5호, 275-301쪽.
- 김은희(2010), “공직선거법상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의 효과 분석: 2010년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권 2호, 73-101쪽.
- _____(2017a),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30년: 삭제된 젠더의 가시화와 갈등적 분투”,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의 역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 당대, 389-428쪽.
- _____(2017b), “그럼에도 페미니스트 정치”, 『그럼에도 페미니즘』, 윤보라·김보화·김홍미리 외, 서울: 은행나무, 91-108쪽.
- 김혜성·박진경·최순영 외(2013),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성공요인분석」, 서울: 한국의정여성포럼.
- 라미경(200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 2호, 211-232쪽.
- 문지영(2015),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여성 정치참여: 과제와 전망”,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플랫폼 만들기: 기초다지기 토론회 파트 1. 여성정치세력화 평가와 전망」, 토론회자료집(2015.05.15).

- 박재욱(2005), “지방화와 함께 가는 지방자치”, 『정치학으로의 산책』, 21세기정치연구회 엮음, 서울: 한울, 231-256쪽.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2015),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플랫폼 전망대회」, 토론회 자료집(2015.10.28).
- 석수경 · 심홍식 · 홍기표(2013), 『나쁜 남자가 당선된다: 2014년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한 실전 노하우』, 서울: 글통.
- 스콧, 조안(2006),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공임순 · 이화진 · 최영석 옮김, 서울: 엘피, Scott, J. W.(1997), *Only Paradoxes to Offer: French Feminists and the Rights of M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엄태석(2011), “충북지역 여성지방의원의 정치참여와 의정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 『정치 · 정보연구』, 제14권 2호, 227-259쪽.
- 오유석 · 김은희(2010), “여성운동의 변화와 분화: 여성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 운동들』, 김동춘 · 김원 · 김정훈 외, 서울: 한울, 245-288쪽.
- 오장미경(2004),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제15호, 257-274쪽.
- 이진옥 · 김민정 · 문경희 외(2014),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6·4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____ · 황아란 · 권수현(2017)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할당제의 효과와 한계”, 『한국여성학』, 제33권 4호, 209-246쪽.
- 이혜숙(2016),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서울: 다산출판사.
- 조이여울(2006), “진보적 여성단체의 위기”, 『진보평론』, 제28호, 240-255쪽.
- 조현옥(2005), “한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한국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조현옥 외, 서울: 사회와 연대, 43-70쪽.
- 최일성(2012),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 1987년 6월 민주항쟁기에 대

두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억과 전망』, 제27권, 192-213쪽.

Bystydzienski, J. M.(ed.)(1992), *Women Transforming Politics: Worldwide Strategies for Empowerment*,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Lovenduski, J.(2005), *Feminizing Politics*, Cambridge: Polity.

Pitkin, H. F.(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Los Angeles: University of Press.

Sainsbury, Diane(1993), “The Politics of Increased Women’s Representation: The Swedish Case”, in *Gender and Party Politics*, eds. J. Lovenduski and P. Norris, London: Sage, pp. 263-290.

〈인터넷 자료〉

네이버(2017),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검색일: 2017.12.10).

(논문 투고일: 2017.10.31, 심사 확정일: 2017.12.04, 게재 확정일: 2017.12.26)

〈Abstract〉

Dilemma and Twin Strategies of Women's Movements for Political Empowerment

Lee, Jinock*

Since they emerged with the introduction of gender quotas to address the issue of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the early 2000s, they have reached an impasse, raising critical questions as to wheth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movements can be seen as achievement or retreat and where to focus either on participation or representation. However, as women are still under-represented, the question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has been raised anew.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terrain of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by making content analysis on a number of roundtable with women's groups in different regions and also the examination on the experience of Suwon Women's Society who participated in election campaign as its former representative ran for a local councilor. In so doing, this paper aims to help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dilemmas and paradoxes inherent in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and contribute to seeking the strategies for the praxis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grasping the tensions arising between women's movements and party politics and also specific issues with which women's movements face up to do the politics of engagement.

Key Words: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women's movement, political parties, dual strategy, Suwon Women's Society

* President, Gender Politics Research Institute(KWPS)